

수정주의의 발생이 국제로동운동에 남긴 역사적교훈

김 철 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정주의의 본질과 표현형태, 그 반동성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려주고 반수정주의투쟁을 강화하여 자그마한 수정주의요소도 우리 내부에서 싹트지 못하게 하며 밖으로부터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7권 502페이지)

국제로동운동의 역사는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구현하여 세계를 변혁시켜온 역사인 동시에 그를 반대하고 공격하여나선 수정주의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사상조류들을 사상리론적으로 분쇄하여온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수정주의의발생이 국제로동운동에 남긴 교훈은 우선 혁명의 대가 바뀔 때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이 나타날수 있다는것이다.

제2국제당수정주의와 현대수정주의는 다 같이 당안에 숨어있던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이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서거한 다음 《창조적발전》을 운운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본질을 개작하여나선 기회주의조류로서 나타났다.

맑스, 엥겔스가 생존해있을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던 기회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서거하자 자기들을 《정통맑스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구실밑에 맑스주의를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베른슈타인은 로동계급의 첫 수령들 특히 엥겔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사회민주당원으로 성장하였다.

엥겔스는 베른슈타인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고 언제나 《당신처럼 자기 지위에서 또 그 지위에 어울

리게 훌륭히 자라고있는 젊은이가 물론 그 지위를 고수하여야 한다는것이 대체로 나의 의견입니다.》(《맑스-엥겔스전집》 35권 231페이지)라고 고무해주면서 걸음걸음 이끌어주었다.

엥겔스는 생전에 자기의 사상리론을 계승할 후계자로 베른슈타인을 내세웠다.

엥겔스는 서거하기 전인 1895년 7월 26일 맑스의 작은 딸 에리나 맑스에게 주는 일부 서신을 제외하고 기타 편지들과 지어 가지고있던 전체 수고(맑스의 수고 제외)를 모두 원래의 규정대로 베벨과 베른슈타인에게 넘긴다고 유언하였다.

이것은 베른슈타인에 대한 엥겔스의 최대의 믿음이였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엥겔스가 서거한지 한해도 못되어 수령을 배반하였다.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당들을 기회주의의 흙탕속에 빠뜨리고 마침내는 제2국제당을 붕괴시켰으며 10월혁명후에는 새로 탄생한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십자군원정》을 공공연히 비호하였다.

베른슈타인은 엥겔스가 서거하자마자 《반교조주의》요, 《검토》요 하면서 맑스주의를 전면수정하는 길로 나아갔으며 나중에는 반동정부의 대신으로서 도이쉴란드로동계급의 1918년 11월혁명을 진압말살하는데 앞장섰다.

현대수정주의의 피수인 흐루쇼브 역시 쓰딸린의 손길밑에서 성장하고 당과 국가의 요직에 등용되였지만 더러운 정치적야욕으로부터 쓰딸린이 서거한 후 수령을 배반하고 그 업적을 중상모독하는 배신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흐루쇼브는 《견결한 불셰비크》로 가장하고 혁명운동대렬안에 기여들어 야심과 공

명심, 물욕을 감춰두고 수령에 대한 충정을 외우다가 쓰팔린의 서거와 때를 같이 하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수정주의로 선을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은 혁명가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의리와 양심도 없는 비렬한 행위이다.

원래 1953년 3월 5일 쓰팔린이 서거한 후 쏘련에서는 말렌코브가 그의 공식후계자로 지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야심가, 음모자인 흐루쇼브가 음모적방법으로 당권을 틀어쥐고 자기 《지반》을 꾸린 다음 말렌코브를 쉽게 제거하였던것이다.

정치적야심에 사로잡힌 흐루쇼브는 수령에게 충실하였던 사람들을 당과 국가의 요직에서 때버리고 아침분자, 불순분자들로 정치적지반을 닦아 권력을 찬탈한 다음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위업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후계자에 의한 수령의 위업계승문제를 제기하고 수령의 후계자를 옳게 내세우는것과 함께 수령의 후계자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수정주의발생이 국제로동운동에 남긴 교훈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지녀야 그를 성과적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이다.

국제로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큰 후과를 미친 수정주의자들은 레외없이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신념을 지니지 못한 동요분자, 인간추물들이었다.

사회주의는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그 후계자에 의해 계승완성되는 위업인것만큼

그에 대한 필승의 신념은 탁월한 수령에 대한 절대적신뢰,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는 혁명적수령관을 초석으로, 뿌리로 한다.

이러한 혁명적수령관은 저절로 서는것이 아니며 그 누가 강요한다고 하여 서게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에게 사상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될 때 형성되고 공고화되는것이다.

국제로동운동안에 나타났던 수정주의자들은 레외없이 저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고 수령의 업적을 말살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수령을 단순한 《개인》으로 묘사하고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와 충정을 《개인미신》이라고 모독하면서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결정적역할을 거세하였다.

흐루쇼브는 쓰팔린이 생존해있을 때에는 그를 《인류의 탁월한 천재》, 《우리모두의 경애하는 스승》이라고 하면서 《충정》을 맹세하였지만 그것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이 아니었다.

흐루쇼브는 마치도 자기가 《쓰팔린에 대한 충정에서 벗어나게》된것이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로서 쓰팔린서거후 3년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것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자기로서는 《모든것을 베리야에게 귀착》시키고 《쓰팔린을 두둔》하려 하였으나 베리야체포후 드러나기 시작한 쓰팔린관계의 《수많은 비행자료》로 하여 할수 없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쓰팔린의 측근으로서 오래동안 그의 보좌관으로 일한 브를라쓰끼는 《흐루쇼브는 당시(쓰팔린생존의 마지막시기) 확실히 이미 다른 마음을 깊이 품고있었다. 비록 그는 마지막까지 내심의 비밀을 감추고있었지만 쓰팔린이 서거한 다음날

에 그의 이러한 기분이 발로된것이다.》라고 하였다. 실지 흐루쇼브는 측근들과 모여앉은 자리에서 《쓰딸린이 10년만 더 일찌기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서방세계까지 경악케 한 흐루쇼브의 배신행위는 1961년 10월 쓰딸린의 시신을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 쓰딸린묘에서 들어내어 화장해버림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흐루쇼브의 《충실성》은 신념의 뿌리에서 나온것이 아니었으며 그가 쓰딸린을 《지

지》한것은 권력을 위해서였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지 못한자들이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리치이다.

지나온 력사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신뢰에 기초한 혁명적신념,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위업이며 그것은 온갖 반동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여야만 사회주의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